

글로벌 풍력·제약사 韓에 8억달러 투자... 다보스서 '낭보'

풍력터빈 베스타스, 3억달러 투자
아태지역본부 한국 이전 적극 검토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노바티스
5억달러 규모 투자협력방안 논의

우리 정부가 글로벌 풍력·제약사 3곳
으로부터 8억달러(약 1조원) 규모 투자를
받을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풍
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사가 3억달러를 투자
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를 한국으
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
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 라이프사이언
스(Merck Life Science)·노바티스(N
ovartis)사도 5억달러 투자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투자 유치 성과는 윤석열 대통
령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투자신고식과 투자자와의 면담을
통한 것으로, 탄소중립과 바이오 등 미
래산업 분야 수출확대와 고용창출, 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베스타스 투자신고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있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헨릭 앤더슨 최고경영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단기술의 국내 이전 등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베스타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투
자신고식에서 우리 산업부장관에게 3
억달러 투자를 신고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 대규모 풍력터빈의 핵심 설비·
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 베스타스 아태지역본부 한국에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 이상
의 풍력터빈을 공급한 글로벌 풍력터빈
기업으로, 이번 투자가 한국의 아태지
역 풍력발전 허브 도약과 국내 풍력발

전 보급 가속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가
잠재력이 큰 풍력발전 시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기업들과의 시너지를 극대
화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앞
서 지난해 11월 22일 장관-베스타스 C
EO 면담 등 투자내용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추후 성공적인 투자이행을 위해
코트라와 함께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19일 진행된 산업부장관과 투자
자의 1대1 면담에서는 독일의 선진 과학
기술 기업인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 스
위스 제약기업 노바티스 주요 경영진과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머크라이프 사이언스의 마티아스 하
인젤 CEO는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며 "신규
바이오 원부재 생산공장 투자를 검토
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요한 투자 후보
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노바티스의 마리-프랑스 취맹 인터
내셔널 혁신의약품 사장 겸 최고 마케
팅 경영자는 "노바티스가 혁신적 의약
품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환자의 치료
결과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에 생
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혁신 의약
품에 대한 환자접근성 강화를 위한 범
부처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한국 정부의 보
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을 설명하고, 노바티스와의 협력 강화
가 바이오 경제 2.0의 성공적인 추진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계획
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 기술·공급
망 등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민관 손잡고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 박차

환경부, '녹색산업 협의체' 출범
녹색 산업계·수출 금융기관 동참
2027년 녹색산업 수출 100조 목표

국내 친환경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손 잡는다.

환경부는 19일 서울 콘래드서울호텔
에서 녹색 산업계, 수출 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
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20
개 기업, 7개 공기업, 3개 수출금융기관
과 녹색산업 지원기관인 환경산업기술
원 등 대표, 임원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출범식 후 기업과 1대1 전
락회의를 통해 신규사업별 애로사항을
점점,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해외 현
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 산업계, 수출 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환경부

부는 올해 20조원, 오는 2027년까지 누
적 100조 규모의 녹색산업 수출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갖
춰야 할 국가경쟁력이 됐고, 전 세계가
이러한 흐름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
나라 녹색산업계가 '친환경 산업' 선점

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
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 장관과 함께 박
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녹색
산업계 기업, 기관이 참여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한수원, 다보스서 폴란드와 유럽 에너지 자립 논의

황주호 사장, 관련 토론회 참여
폴란드 대통령과 협력방안 등 논의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폴란드관에서
개최된 고위급 패널 토론회에 참석
해 '유럽의 에너지 자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세계경제포럼(다
보스포럼)을 계기로 폴란드 정부 주도
로 개최됐다.

황 사장의 토론회 참석은 야체크 사
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
유재산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
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
드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야체크 사신 부총리 겸 국
유재산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보이치에흐 동브로브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폴란드관에서 개최된 고위급 패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부터), 황주호 한수원 사장, 보이치에흐 동브로브스키 PGE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스키(Wojciech Dabrowski) 폴란드국
영전력공사(PGE) 사장, 그리고 마치에
이 스테츠(Maciej Stec) ZE PAK 이사
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유럽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폴란드의 원자력분야 투자 필요

성, 폴란드의 에너지 전환 방안, 양국의
원전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의 원전 개발사 및 노형에 대
한 설명도 있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토론회에서
"폴란드 민간발전사와의 협력을 통해
폴란드내 신규원전을 적기에 건설함으
로써 폴란드의 저탄소 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말 폴란드 민
간발전사인 ZE PAK 및 폴란드국영전
력공사(PGE)와 협력의향서(LOI)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
는 정부부처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폴
란드 포트누프 부지에 한국형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과기정통부, 올 디지털 인재 5.2만명 양성

4537억 투입... 작년 대비 500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디지털
(ICT)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만 2000명을 양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디
지탈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7월 발표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대책'의 본
격적인 이행에 나서면서 사업 신설과
기존 교육 과정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양
성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주
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
화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으로 연계하는 '캠퍼스·네
트워킹형 SW아카데미'는 지난해 대비
650명 늘어난 1250명 양성에 나서며, 기
업과 대학,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민·관 디지털 인재양성의
협력 구심점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
회와 분과 구성을 통해 활동을 본격화
하며, 온·오프라인 채용관 운영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배지 확산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얼라이언스에서는 기업의 자발
적 인재양성 활동을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디지털 리더스 클럽'
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 과기정통
부장관 표창, 컴퓨팅 인프라 제공 등 인
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기술을 선도할
최고 수준의 석·박사 양성도 분야별로
확대한다. 국산 AI(인공지능) 반도체 개
발을 선도해 K-클라우드 확산에 나설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AI반도체 대학
원' 3개교를 신설한다. 또 인공지능·메타
버스·사이버보안 등 주요 디지털 분야
대학원의 추가선정과 함께 대학 IT연구
센터도 6대 분야 중심으로 재편해 지난
해 47개에서 올해 52개로 확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echo@

반려견 외출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 필수

농식품부, 개물림 사고 등 예방

앞으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
야 한다. 또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간에
서도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
을 잡아야 한다.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지자체에 인
계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 그
사유를 구체화했고, 반려동물 영업자는
거래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
행되는 '동물보호법'에 필요한 법률 위
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
한 반려동물 소유주의 준수사항이 보다
강화된다.

현재 2개월령 이상 등록대상동물 소
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 목
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
치를 달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
해관계자 등의 견수령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